

P A P I

RUNWAY

Magazine

REPORT

People at Airports with Pride and Insight

Spring 2026

A
NEW
TAKEOFF
+
The Safest
Airport
We Create

NEW
SEASON
START

VOL.
01

남부공항서비스 (주)
SOUTH AIRPORTS SERVICE

CHEER UP!

* talks about south airports service

SAS 남부공항서비스 (주)
SOUTH AIRPORTS SERVICE

The Cover History



제주국제공항 항공등화팀 풍향등 점검 작업

editor 전략기획팀

지난 봄 홍보동영상 촬영을 통해, 제주국제공항의 많은 직원들의 멋진 모습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멋진 모습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기별발간

발행처 남부공항서비스(주)
발행인 조현영 대표이사
발행월 2026. 05.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기획·디자인 전략기획팀 송지혜
홈페이지 www.sairports.kr

* <PAPI>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는 원작자를 제외하고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

Part 1

Intro: 우리를 잇는 불빛

- 03 PAPI를 소개 합니다
활주로의 길잡이에서 우리마음의 길잡이로
- 05 창간기념 CEO 레터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Part 2

Pride: 전문성과 자부심

- 07 Special Report
'20-'26: 우리가 함께 밝힌 안전의 궤적
- 11 2026년
우리의 오늘
- 13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공항을 만드는 우리의 진심



Part 3

Airport: 현장의 목소리

- 15 오늘의 공항 날씨
지점집중 조명: 김해, 여수, 사천
- 21 로컬 트렌드
공항 밖 보물찾기

Part 4

People: 함께해서 더 빛나는 우리

- 27 Pocus US
남부공항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 29 사내동아리
함께하면 즐거운 우리

Part 5

Insight: 내일의 시선

- 31 트렌드 리포트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합니다
- 33 관제탑 브리핑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해야할 정책 주파수

Part 6

Outro: Always With You

- 37 미리보기
췌! 비밀이야, 너만 알려줄게
- 42 너의 이야기
들려줘, 너의 이야기





PAPI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첫 사내소식지를 소개합니다.

활주로의 길잡이에서, 우리 마음의 길잡이로

- 항공기가 철쭉 같은 밤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활주로에 내려앉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PAPI(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진입각 지시등) 덕분입니다.

PAPI는 활주로 옆에서 붉은색과 흰색 불빛을 비추어 조종사에게 정확한 하강 각도를 알려주는 필수 항행안전시설입니다.

우리 남부공항서비스가 전국 10개 공항에서 완벽한 시설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책임지는 것처럼, 이 'PAPI'라는 이름은 우리 업(業)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 기술을 넘어 '사람'의 가치로 의미 확장
"PAPI" 라는 기술적 용어에 우리만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그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 People at Airports with
Pride and Insight "
공항 현장에서 자부심(Pride)을 갖고,
깊은 통찰(Insight)로 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본사와 10개 지점의 업무와 사람, 그리고 문화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전경

■ 'PAPI'에 정성껏 담아낼 콘텐츠

매 분기 발행될 소식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네 가지 키워드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 Pride (자부심): 분기별 경영 메시지와 안전 관련 소식 등을 통해 우리 회사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 Airport (공항): 지점의 생생한 현황과 공항 인근의 숨은 명소 정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담습니다.

- People (사람): 동료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 줄 칭찬'과 동아리 활동, 신규 입사자들의 풋풋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Insight (이야기): 공항산업의 전망과 정부 정책 공유 등을 담아내어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PAPI'는 연 4회, 분기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호 각 지점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며 우리 안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연대감을 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PAPI'의 불빛을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남부공항서비스 임직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PAPI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경청(傾聽)으로 열고, 공감(共感)으로 잇는 남부공항서비스의 내일

- 사내소식지 창간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공항서비스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새로운 소통의 장이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꿈트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남부공항서비스의 활기찬 심장 소리를 전할 사내 소식지 <P.A.P.I>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항의 안전과 완벽한 운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발행하는 창간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신뢰의 손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동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P.A.P.I>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조현영

첫 번째 문(門): 경청(傾聽)

-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통의 거리는 멀어지기 쉽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경영진에게 닿기까지 높은 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소식지 창간을 기점으로 조직 내에 '경청의 문화'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자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정성입니다. 이 소식지가 현장의 고충과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동료들의 땀방울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門): 공감(共感)

- 마음을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공항 시설 운영관리 서비스는 거대한 정밀 기계와 같아서, 어느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전체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부서 간의 벽과 직급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공감'입니다.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원팀(One Team)'이 될 수 있습니다.

<P.A.P.I>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과를 격려하며, 때로는 동료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정겨운 마당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고 어려움에 위로를 건네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남부공항서비스는 그 어떤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무안국제공항 항공유저장소 순회 점검



▲ 제주국제공항 집하장 순회 점검

세 번째 문(門): 성장(成長)

- 함께 걷는 내일을 꿈꿉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은 수치상의 지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직무 전문가로 거듭나고, 그 개별적 성장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실패의 경험조차 소중한 자산으로 공유하여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터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발전으로 돌아오는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사랑하는 남부공항서비스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 이 소식지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동료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수사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솔한 현장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조원영

Special Report

우리가 함께 밝힌 안전의 귀적



2020.
01.01



2025
12.31

[2019-2021] 유도등을 켜다 안전의 첫 불빛

2019

- 11월 남부공항서비스(주) 설립
- 11월 남부공항서비스(주) 초대 사장 조영진 대표이사 취임
- 12월 사업자등록 허가 및 KAC공항서비스(주) 영업 양도·양수 계약

2020



- 1월 고용승계/전환채용/신규채용 직원 1,300명 입사
- 7월 공직유관단체 지정
- 8월 필수유지 업무 협정서 체결

2020

- 9월 임금체계 통합 개편위원회 구성
- 10월 단체협약 체결
- 12월 임금체계통합개편 용역계약 체결



2021



- 1월 독립적인 감사조직 구성 및 감사인 임명
- 2월 2020년 임금협약 체결
- 5월 남부공항서비스(주) 안전경영방침 공표

2021

- 8월 임금통합개편위원회 및 노사협의를 통한 4급이하 직원 직급발령 1,107명
- 12월 노사간 임금통합개편 합의서 체결
- 12월 2021년 임금협약서 체결

[2022-2024] 광도를 높이다 혁신의 빛



○ 2022

- 3월 Safety기반 ESG경영 실천을 위한 모자회사 합동 ESG 경영 선언
- 7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포항공항 명칭 변경 → 포항경주공항
- 7월 2022년 임금협약서 체결

○ 2023

- 3월 남부공항서비스(주) 2대 사장 조현영 대표이사 취임
- 4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취득(김해국제공항)
- 9월 남부공항서비스(주)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선포

○ 2023

- 11월 한국공항공사 주관 「공항 고객접점 서비스 인증제」 전 규모 우수 접점 선정
- 11월 남부공항서비스(주) 미래비전 선포 및 관리자 워크숍 개최
- 12월 2023년 임금협약서 체결

○ 2024

- 7월 김해국제공항지점 PSM 평가 'S등급' 취득
- 8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달성
- 8월 안전사고 사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2024

- 11월 남부공항서비스(주) 노사상생협력 컨퍼런스 및 관리자 리더십 교육 개최
- 12월 외부 고객만족도조사·접점 서비스 모니터링 최우수
- 12월 2024년 임금협약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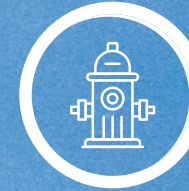
[2025] 이륙을 준비하다 무정전 안전귀적



○ 1분기

- 1월 협력문화 조성 및 조직소속감 증대를 위한 사내 동호회 신설 운영
- 2월 안전사고 저감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3월 남부공항서비스(주)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선포

○ 2분기



- 4월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사업면허 취득
- 5월 직제규정 개정 및 조직 개편
- 6월 '25년 종합감사'위탁인력관리 효율' 수범사례 선정

○ 3분기

- 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취득(제주국제공항)
- 8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 8월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사태 대응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개정

○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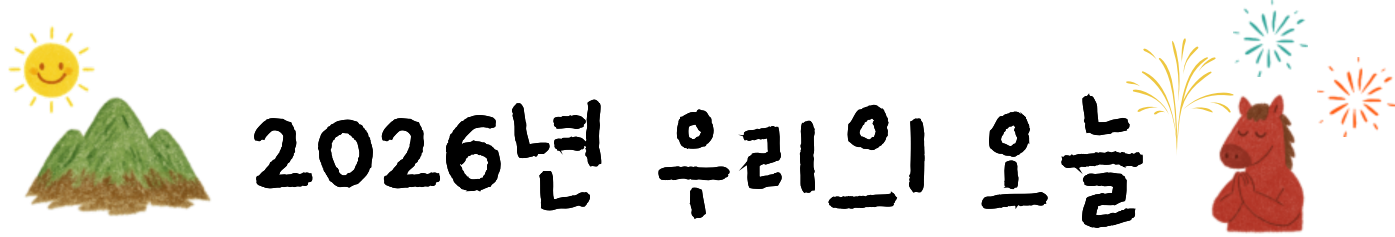


- 11월 모·자회사 ESG경영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11월 창립6주년 기념 노사상생컨퍼런스 개최
- 12월 전사적 업무효율화 '제안제도' 운영

○ 4분기

- 12월 실내건축 공사업 사업면허 취득
- 12월 단체협약서 체결
- 12월 2025년 임금협약서 체결





2026년 우리의 오늘

1분기

- 1월
 - 남부권역 공항시설 위탁관리 계약 체결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 2월
 - 직급 승진 및 직책부여
 - 설 연휴 특별수송대책기간 운영
- 3월
 - 단체상해보험 가입
 - 체육문화행사 시행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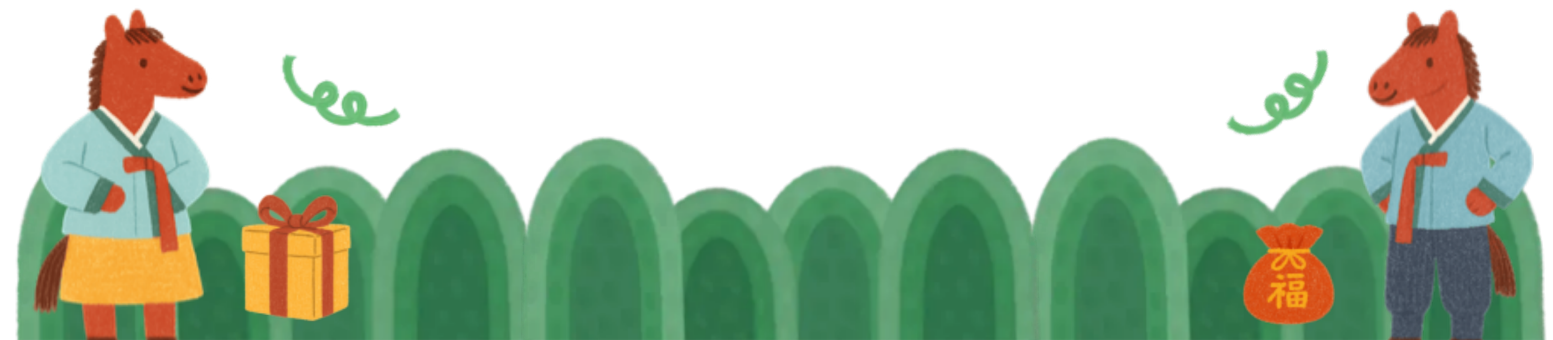
- 4월
 - 선택적복지제도(복지포인트) 운영(~ 11월)
 - 모·자회사 합동 「맞춤형 건강플러스+」 운영
- 5월
 - 이정욱 상임감사님 취임
 - 휴양소 운영
- 6월
 - 우기대비 주요시설물 특별점검
 - 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현장 실사

3분기

- 7월
 - 하계 특별수송대책기간 운영
 - 상반기 정규직 채용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 8월
 - 상반기 정규직 채용 신입사원 입사(8.1)
 -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9월
 -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기간 운영
 -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4분기

- 10월
 - 임직원 건강검진 운영종료(~ 10월)
 - 한국항공공사 국정감사 대응
- 11월
 - 인사 성과평가
 - 관리자 워크숍 시행
- 12월
 - 하반기 정규직 채용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 성과보고회 개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이 무엇인가요?



기업의 재무적 요소 이상으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사회적책임, 건전한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

- * **환경(E)**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 * **사회(S)** : 인권 존중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 * **지배구조(G)** : 법과 윤리의 준수 및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업운영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약 20개국,
한국은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방안 발표

다른지역 같은공간의 이야기

오늘의 공항 날씨!



지점 집중조명

남해안 하늘길의 세 주인공

#김해 #글로벌 #동남권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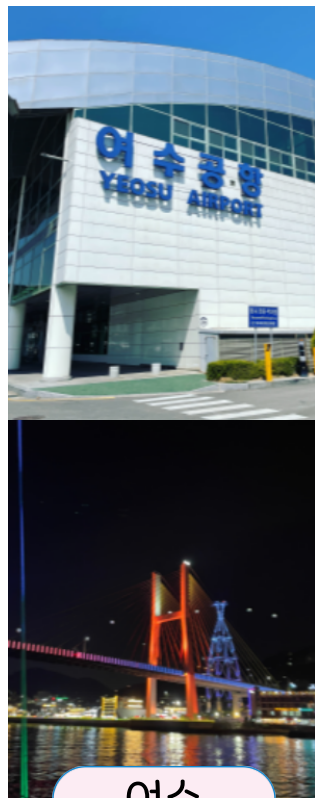
#여수 #접근성 #남해안관광

#사천 #항공우주 #군/민간 공항

이번호 지점 소개



김해



여수



사천

김해국제공항

PUS/RKPK



2025년: '감(感)'의 시대를 끝내고 '수치(Data)'의 시대를 열다

김해공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열정의 용광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김해지점 식구들은 마치 비행기 엔진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으니까요.

작년 김해지점이 BP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디지털 각도계를 활용한 장비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작업자의 '눈썰미'와 '경험'에 의존했던 장비 수평 및 각도 조절을 0.1도 단위의 디지털 수치로 정밀화한 것이죠.

김해지점 식구들이 BP 경진대회에서 당당하게 최우수를 거머질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안전을 '보이는 숫자'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지점명	김해국제공항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정원	총 456명 (지점장 1, 부지점장 1, 팀장 11, 파트장 48)
조직구성	- 김해국제공항 총괄 - 시설 기계, 플랜트, 전기, 항공동화 통신, 건축, 토목조경, 로목조경(장비정비) 조류충돌예방, 탑승교운전 - 운영 고객지원(안내/의전/영접/유실물/수위) 주차, 순환버스 - 친환경 미화/카트
특이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 지방 공항 최초 국제선 여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 운영 역량 증명 - 시설 현대화 [국제/국내선 동력동 열원 장비, 국제선 승강기(EV 3대, ES 7대) 및 공조기 교체예정



각도계거치대 설치



집입등시스템 설치

안전에도 '클래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KOSHA-MS

김해지점의 활주로를 걷다 보면 동료들의 어깨 위에 얹힌 묵직한 자부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공인한 안전의 징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입니다. 2025년 봄, 우리 지점이 거둔 값진 결실을 한 편의 기록으로 전합니다.

지난 2025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김해지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KOSHA-MS 사후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시스템이 단순히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점원들의 안전 속에 실재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엄격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적합'

이틀간의 정밀 심사 결과, 김해지점의 안전 관리 이행 사항은 단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고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심사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준 체계적인 실행력은 "역시 김해는 준비된 지점"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증 유지라는 결과 뒤에는 매일 아침 안전장비를 챙기고 점검 수칙을 외웠던 우리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KOSHA-MS 심사 현장



전기탑 LOTO



전기탑 수배전실



기계실 오수처리장



청정 소화 약제실



심사 종료 회의

낭만 너머의 혁신, 여수지점이 피워낸 스마트 행정의 꽃 - 2025년 BP경진대회 대상

여수공항에 내리면 코끝을 스치는 갯내음보다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지점 동료들의 활기찬 에너지입니다. 2025년 한 해, 여수지점은 '여수 밤바다'의 낭만만큼이나 빛나는 '행정의 대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추진된 여수지점의 혁신 스토리를 전합니다.

■ 2025년 성과: 서류 뭉치와의 작별 - 행정의 '민주화'를 선언하다

여수지점의 행정은 소수 인원에게 집중된 묵직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는 이 짐을 나누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현장의 '뿌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설분야 353개, 운영분야 58개 등 총 411개에 달하는 서류철을 전수 조사하여 분류 체계를 바로잡고, 이를 과감하게 전자문서화했습니다.

결과는 지표로 증명되었습니다. 2021년 단 10명에 불과했던 그룹웨어 기안자가 2025년에는 36명으로 3.6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특정인만이 아닌, 지점원 모두가 행정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 제작한 '지점 업무지침'은 신입 사원도 하루 만에 고참의 노하우를 습득하게 하는 여수지점만의 '비급(秘笈)'이 되었습니다.

여수공항



지점명	여수공항
소재지	전라남도 여주시 울촌면 여순로 386
정원	총 57명 (지점장 1, 파트장 8)
조직구성	- 여수공항 총괄 - 시설 기계, 전기, 통신, 건축, 토목조경, 조류충돌예방, 탑승교운전 - 운영 고객지원(의전), 주차 - 친환경 미화/카트
특이사항	- 한국공항공사가 100% 소유한 민간공항 -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의 정중앙 위치 - 2021년과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하늘길이 막혔을 때 여수공항은 오히려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와 여수로 몰린 국내 관광객 덕분에 개항 이래 최초 2년 연속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움

2026년 하반기: 여수 세계섬박람회 - 국제선을 맞이하는 비장한 각오"

여수공항지점의 2026년 달력에는 유독 새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진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지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기간입니다.

그동안 남해안의 다정한 로컬 공항이었던 여수공항이 이 기간만큼은 '글로벌 모드'로 변신합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8편의 국제선 임시운항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수공항 상공에 대한민국 국적기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기들의 날개가 닿는 순간, 우리 여수지점 전 직원은 '여수공항 지점 사단'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완벽하게 전직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영의 플래카드를 거는 것 이상의 '철저한 과학'입니다. 현재 여수지점 현장은 전세계 귀빈들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준비로 분주합니다.

가장 먼저 국내선과 국제선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입출국장을 완벽히 분리하고, 공항의 핵심 보안 구역인 CIQ(세관·출입국·검역) 전용 구역의 설치 및 지원 작업을 빈틈없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 항공기가 뜨는 만큼, 달콤한 밤잠을 반납해야 하는 야간 운항에 따른 철저한 인력 시프트(Shift) 조율과 근무조 편성도 이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주차 대란'이라는 변수를 지우기 위해 임시 주차장 40면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만차 시 즉각 투입될 스탠바이 특별근무조까지 배치하는 등 그야말로 '디테일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25대 신설(P2, P3 주차장)과 여객청사·관제탑의 수배전설비 교체, 그리고 하반기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교체까지 마주하고 있는 여수지점. 비록 몸은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닦아놓은 활주로와 주차장 위로 세계가 움직인다"는 자부심 하나로 여수지점의 엔진은 지금도 RPM 최고조로 가동 중입니다.

사천공항



지점명	사천공항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정원	총 10명 (지정장 1)
조직구성	- 사천공항 총괄 - 시설 - 조류충돌예방 - 운영 - 고객지원(영접/유실물), 주차 - 친환경 - 미화/카트
특이사항	- 대한민국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군민 공용 공항 - 경상남도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민간 공항 - 사천에 위치한 KAI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나 T-50 고등훈련기가 사천공항 활주로를 통해 첫 시험 비행 -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내부가 에어쇼 기간에는 축제 장소로 개방되며 활주로 바로 옆까지 걸어 들어가 전시된 수십 대의 항공기(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를 직접 만져보고 조종석에 앉아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

남도 하늘길의 중심, 사천공항의 재도약

사천공항은 경남 서부권의 유일한 하늘길이자,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과 진주를 잇는 핵심 거점입니다. 최근 지역 사회와 공항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사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 '섬에어' 신규 취항으로 열린 쾌속 하늘길

지난 3월 30일, 지역 기반 항공사 '섬에어(Sum Air)'가 사천~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사천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취항으로 사천~김포 노선은 기존 하루 왕복 2회에서 왕복 6회(총 12편)로 대폭 늘어나, 도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숫자보다 강한 것은 우리의 '연결'입니다

우리 사천공항 멤버는 단 10명입니다. 대형 공항의 인력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서로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원팀(One Team)'입니다.

항공우주청 개청과 섬에어 취항으로 사천공항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업무 하중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으로 각자의 위치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사천공항의 '자부심'을 만들고 내일의 사천공항을 만듭니다.

공항 밖 보물찾기

비행기 소음 대신 낭만 한 잔, 공항 인근 로컬 스팟의 재발견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을 마중하다 공항 울타리 너머 숨겨진 '로컬 보물'

벚꽃의 화려한 외출이 끝난 자리에 연둣빛 생명력이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공항은 늘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분주한 공간이지만, 그 울타리를 살짝만 벗어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계절의 정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 로컬 트렌드에서는 전국 주요 공항을 거점으로,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다가올 여름의 싱그러움을 예고하는 전국의 보물 같은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남해의 푸른 바람이 머무는 곳

사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길 권합니다. 공항과 맞닿은 사천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사천 에어쇼가 펼쳐지며 비상하는 기상의 전율로 여객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위용과 블랙이글스의 환상적인 곡예비행이 선사하는 짜릿한 장관을 만끽했다면, 이제 발길은 푸른 남해 물결을 따라 여수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전율을 뒤로하고 달은 여수에서는 바다 위에 펼쳐진 인류의 미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여정의 중심지가 될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천 하늘에서 느꼈던 역동적인 에너지가 여수의 푸른 바다 위에서 거대한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 사천에어쇼 포스터 및 오동도 야경 전경

역사와 향기,

그리고 푸른 바다가 흐르는 길

여수공항에 발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세계적 여정의 시작점이 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이 거대한 향연은 여수 앞바다의 아름다운 섬들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초현실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람회장의 푸른 열기를 품은 채 남해안의 수려한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통영의 한산대첩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군점행렬과 거북선 노젓기 대회,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공중 한산대첩 재현은 시대를 뛰어넘는 웅장한 감동을 전합니다.

축제의 흥겨움 속에 출출해질 즈음, 여수의 명물인 이순신수제버거나 통영 고유의 감칠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통영 꿀빵과 신선한 멥게비빔밥 한 그릇을 곁들인다면 바다와 역사가 어우러진 남도 여행의 정점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어도, 여름의 빌린 날들은 너무나 짧기만 하구나."
-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네트> 18번 中 -

전남의 또 다른 관문인 무안국제공항 역시 축제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5월 말, 인근 곡성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수천 종의 장미 향기로 유혹합니다.

전 세계에서 건너온 희귀한 장미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4만 평의 부지를 붉고 노란 원색의 바다로 물들이는 장관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내뿜는 하얀 연기와 짙은 장미 향기가 어우러진 철길을 걷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오래된 정원을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함평의 자부심이 담긴 '화랑식당'의 생고기 비빔밥 한 그릇까지 곁들인다면, 무안공항에서 시작된 이번 여정은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봄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

시간을 거스르는 산책과 여름의 서막

어느덧 봄의 끝자락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 김해공항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달리는 거제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6월 말, 거제 남부면 일대를 푸르게 물들이는 수국축제는 다가올 여름의 청량함을 예고합니다. 저구항 바다를 배경으로 핀 푸른 수국 길을 걸은 뒤, 성게비빔밥과 해물칼국수로 유명한 거제의 맛집들을 탐방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거제 남부면 수국 전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부산에 발을 내디뎠다면, 망설임 없이 해운대 바다로 향해 보길 권합니다. 5월이면 해운대 백사장은 파도 소리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모래 조각 작품들로 장식됩니다.

단순한 모래성을 넘어 세밀한 근육의 움직임과 건축물의 디테일까지 재현해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모래'라는 흔한 소재가 예술로 승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뒤, 조명을 받아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야간 조각 전시와 밤 바다의 정취는 낮과는 또 다른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 부산 해운대 모래축제 전경

"여행의 목적지가 길 그자체가 되기도 한다"

비행기 표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곁의 공항은 수많은 이야기와 보물을 품은 로컬 여행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익숙한 일상을 뒤로하고 공항 밖 숨겨진 계절의 보물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천의 맛

- 하주옥에서 만난 '육전 냉면'

사천공항 근처에서 진정한 로컬의 맛을 찾고 있다면, 고민 없이 '하주옥'으로 향해 보세요. 이곳은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압도당하고 맙니다.

기본 찬으로 내어주는 뜨끈한 선지해장국의 깊은 맛부터 속이 짝 찬 찐만두, 신선한 샐러드와 정갈한 밑반찬들까지. 마치 잘 차려진 한정식 코스를 마주하는 듯한 환대의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하주옥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겹의 육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미식을 즐기는 방법은 육전과 함께 비빔냉면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Editor's Tip

- 하주옥을 즐기는 1%의 비법!!

두툽한 두겹의 육전을 조심스레 펼쳐서 매콤달콤한 비빔면을 육전으로 돌돌 감싸 한 입 가득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고소한 계란물의 풍미와 쫄깃한 육질, 그리고 냉면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순간, 사천 여행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 사천 하주옥 냉면과 육전

함평의 자부심

- 육회가 아닌 '생고기 비빔밥'

무안공항에서 함평으로 향하는 길, 시장통의 활기를 따라가면 함평 한우의 정수를 보여주는 '화랑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을 유심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육회비빔밥' 대신 '생고기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니며, 오늘 아침에 잡은 '생고기제!'" 함평 사람들에게 '육회'는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생고기'는 오직 당일 도축한 한우 본연의 찰기와 고소함으로 승부하는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 함평 한우 생고기 비빔밥

Editor's Tip

비빔밥이 나오면 함평만의 독특한 전통인 '돼지비계'를 취향껏 넣어보세요. 부드러운 돼지비계가 신선한 생고기의 식감을 더욱 극대화하며,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의 잔치를 열어줍니다. 곁들여 나오는 선지국 한 모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왜 함평이 '생고기 비빔밥'의 성지인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수바다의 역동성을 담은 한 입, '이순신수제버거'

여수공항을 나서 이순신 광장에 다다르면, 고즈넉한 바다 풍경 사이로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길거리 미식으로 자리 잡은 '이순신수제버거'입니다.

이곳의 버거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기본에 충실한 직관적인 맛으로 승부합니다. 매일 아침 구워내는 부드러운 번(Bun) 사이에 육즙 가득한 수제 패티,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고기 향과 특제 소스의 감칠맛은, 마치 이순신 장군의 기개처럼 강렬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Editor's Tip

- 이순신 수제버거를 200% 즐기는 방법
버거를 주문할 때 꼭 '치즈스틱'을 함께 추가해 보세요. 평범한 치즈스틱이 아닌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달콤 고소한 맛인데, 짭조름한 버거를 한 입 먹고 이 치즈스틱을 곁들이면 완벽한 '단짠(달고 짠)'의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매장에서 파는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곁들여 이순신 광장 벤치에서 바닷바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가장 힙한 방법입니다.



▲ 여수 이순신 수제 버거

통영의 햇살을 담은 달콤함, - 통영꿀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깃든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열기 속을 거닐다 보면, 달콤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통영 여객선터미널 앞 거리를 아기자기하게 수놓은 '통영꿀빵'의 향기입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반죽 속에 달지 않고 담백한 팔소를 듬뿍 넣고 튀겨낸 뒤, 겉면에 조청과 깨를 아낌없이 입혀낸 비주얼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일명 '겉바속촉'의 정석을 보여주며, 남해안의 따스한 햇살 같은 달콤함을 선물합니다.



▲ 통영 오미사 꿀빵

Editor's Tip

꿀빵을 먹을 때는 가게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손가락 비닐장갑을 끼고 조청이 가장 많이 묻은 바닥 부분부터 입에 넣으세요. 첫 입에 달콤함이 혀끝을 자극한 뒤 빵의 고소함이 밀려와 풍미가 깊어집니다. 특히 상큼하고 씹사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따뜻한 흰 우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꿀빵 한 입 후 바로 머금으면, 입안에서 겉면의 조청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극상의 디저트 타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제 바다의 깊고 진한 환대 - 성게비빔밥

여름을 마중하러 떠난 거제의 푸른 저구항 바다 끝자락에서는 이번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성게알 비빔밥'을 만나야 합니다.

거제 해녀들이 거친 파도를 뚫고 직접 채취한 성게알은 향 자체가 곧 양념입니다. 고추장 대신 고소한 참기름과 깨, 김 가루만 살짝 더해 속속 비벼내는 것이 거제식 성게비빔밥의 핵심입니다.

따뜻한 밥의 온기에 성게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밥알 하나하나를 코팅하는 순간, 씹사름하면서도 이내 고소하고 달콤한 바다의 향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 거제 보재기집 성게비빔밥과 물회

Editor's Tip

성게비빔밥이 나오면 절대로 손가락으로 톡톡 비비지 마세요. 성게알의 귀한 형태가 으스러져 물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을 이용해 밥알과 성게알을 살살 달래듯 흐트러뜨리며 비벼주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리고 첫 한 입은 온전히 비빔밥만 음미한 뒤, 두 번째 입부터는 같이 나오는 구운 김(양념 되지 않은 김)에 밥을 얹고 그 위에 밑반찬으로 나오는 짭조름한 젓갈을 살짝 올려 씹을 싸 드셔보세요. 바다의 감칠맛이 폭발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미식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 편의 완벽한 에세이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새내소식지 !!

원고 구합니다
글·그림·사진
절찬 모집



★모집 분야★

- 지점별 특종
- 팀별 업무소개
- 특별한 취미 자랑
- 지역별 맛집소개

기고 형태

글 / 그림 / 사진 등
★★초보 가능 · 경력자 우대★★

채택 방식

☞ 분기별 취합 후 개별연락 ☜
일단 다 드루와

지원 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간편 접수※

부서 / 분야 / 성명 / 희망분야 필수 선택해주세요



문의 051-974-2023 (전략기획팀)
<https://naver.me/5p0qVq0U>



복(福) 받을 귀하신분

★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 ★

병오년(丙午年) 한정 초특급끼 발산의장

급귀 우리회사 직원 누구나 가능!

지점무관 / 분야무관 / 직급무관

전직원 한정 "판"갈아드림

걱정마세요 글(문장) 다듬어드립니다!!

앗! 글 기고하기 업무보다 쉽다!

Employee 사내

구기종목

- 볼링동아리**
 김해공항
 - 클로저 B.C
 무안공항
 - 스트라이크

- 족구동아리**
 제주공항
 - 차쿠광
- 탁구동아리**
 여수공항
 - 플라이 핑퐁

달리기

- 러닝동아리**
 제주공항
 - 도들락 러닝크루

- 마라톤동아리**
 제주공항
 - South Running Crew

등산&트레킹

- 등산동아리**
 제주공항
 - 오르다
 - 산내들오름
 - 질그랭이
 - 푸른하늘 산악회

- 트레킹동아리**
 김해공항
 - 부산바닷길트레킹
 - 구구팔팔트레킹

앞으로 사내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사내 동아리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
 우리 동아리를 알고 싶다면 기고 부탁드립니다.

Club

스포츠/영화 관람

- 스포츠 관람 동아리**
 본사
 - 남부갈매기
 광주공항
 - 문명

- 영화 관람 동아리**
 김해공항
 - 무비크루
 사천공항
 - 영화사랑

동아리

자기계발

- 자격증 취득 동아리**
 김해공항
 - 자격증 시험준비
 - 또다짐

- 봉사활동 동아리**
 김해공항
 - 동행모임회

취미/창작 활동

- 시낭송 및 창작활동 동아리**
 김해공항
 - 문학소녀

- 운동 및 취미활동 동아리**
 울진비행장
 - 너비너울

게임

- 보드게임 동아리**
 대구공항
 - SAS BOARDGAME CLAN

- 온라인게임 동아리**
 제주공항
 - 겜사모





Latte is

에hem,, 자고로 현장이란 말이오,,,,, 수동의 미학이 살아있던 시절

자고로 현장이란

For example.



The "That's Me" List

- ✓ 먹지(카본지)를 대고 꾹꾹 눌러 쓰며 보고서 석 장을 한 번에 만들던 손맛이 기억난다.
- ✓ 디지털카메라(똑딱이)로 사진 찍고 케이블 연결해서 컴에 옮기던 시절이 기억난다.
- ✓ 비 오는 날 점검표 종이가 젖어서 글씨가 안 써져 당황한 적이 있다.
- ✓ 중요한 지시 사항을 잊을까 봐 장갑 등이나 손바닥에 적어본 적이 있다.
- ✓ 설계 도면 한 번 보려면 돗자리 퍼듯바닥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들여다봤다.
- ✓ 데이터보다 "이 소리가 들리면 이쯤 조여라"라는 선배의 귀신같은 '감'이 지침서였다.
- ✓ 무전기 배터리가 떨어져서 중요한 순간에 연락 두절된 경험이 있다.
- ✓ 주요 거래처와 부서별 내선 번호 수십 개를 머릿속에 '단축번호'처럼 외우고 다녔다.
- ✓ 부서 간 연락하려면 내선 번호 적힌 종이 장부를 한참 뒤져야 했다.
- ✓ 선배들의 "눈썰미"와 "직감"을 배우는 게 기술 전수의 핵심이었다.
- ✓ 지도 앱은커녕 종이 지도 한 장 들고, 현장 지름길을 헤매며 찾아다녔다.
- ✓ 여름철 현장 대기실의 유일한 희망은 선풍기 한 대였다.
- ✓ 한여름, 얼음 띄운 보리차 한 대접과 부채질 하나로 더위를 이겨내며 으샤으샤 했다.
- ✓ 사무실 입구에 있는 칠판에 '행선지'와 '복귀 시간'을 직접 분필로 적고 현장에 나갔다.



ah...no it's not!

I'm an old man!



I'm a youngster

선배님,, 이제 "클릭"의 시대입니다

갓생효율

서마러폰



The "That's Me" List

- ✓ 이제는 종이 점검표보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하는 게 훨씬 빠르다.
- ✓ 현장 특이사항은 말보다 메신저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한다.
- ✓ 모르는 게 생기면 두꺼운 책 대신 스마트폰 검색창을 켜다.
- ✓ 스마트 워치로 내 걸음 수와 활동량을 체크하며 건강 관리를 한다.
- ✓ 연차 신청부터 급여 명세서 확인까지, 컴퓨터 켜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끝낸다.
- ✓ 현장 안전 수칙을 동영상이나 카드뉴스로 쉽고 빠르게 배운다.
- ✓ 선임들이 "나 때는 말이야"보다 "요즘 장비가 진짜 좋네"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 ✓ 폭염이나 혹한기 알림 문자를 받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게 당연해졌다.
- ✓ 사무실 안 가도 현장에서 바로 결재 올리고 공유하는 게 일상이다.
- ✓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로 휴식시간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낸다.
- ✓ 졸음 오는 강의 대신, 핵심만 담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안전 수칙을 숙지한다.
- ✓ "라떼는 몸으로 때웠는데"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최신 장비들이 업무 강도를 낮춰준다.
- ✓ 쌓아온 현장 노하우에 디지털이 더해지니, 몸은 편해지고 전문성은 더 높아진 기분이다.
- ✓ 예전보다 몸은 덜 힘들고, 머리는 더 많이 쓰는 스마트 베테랑이 된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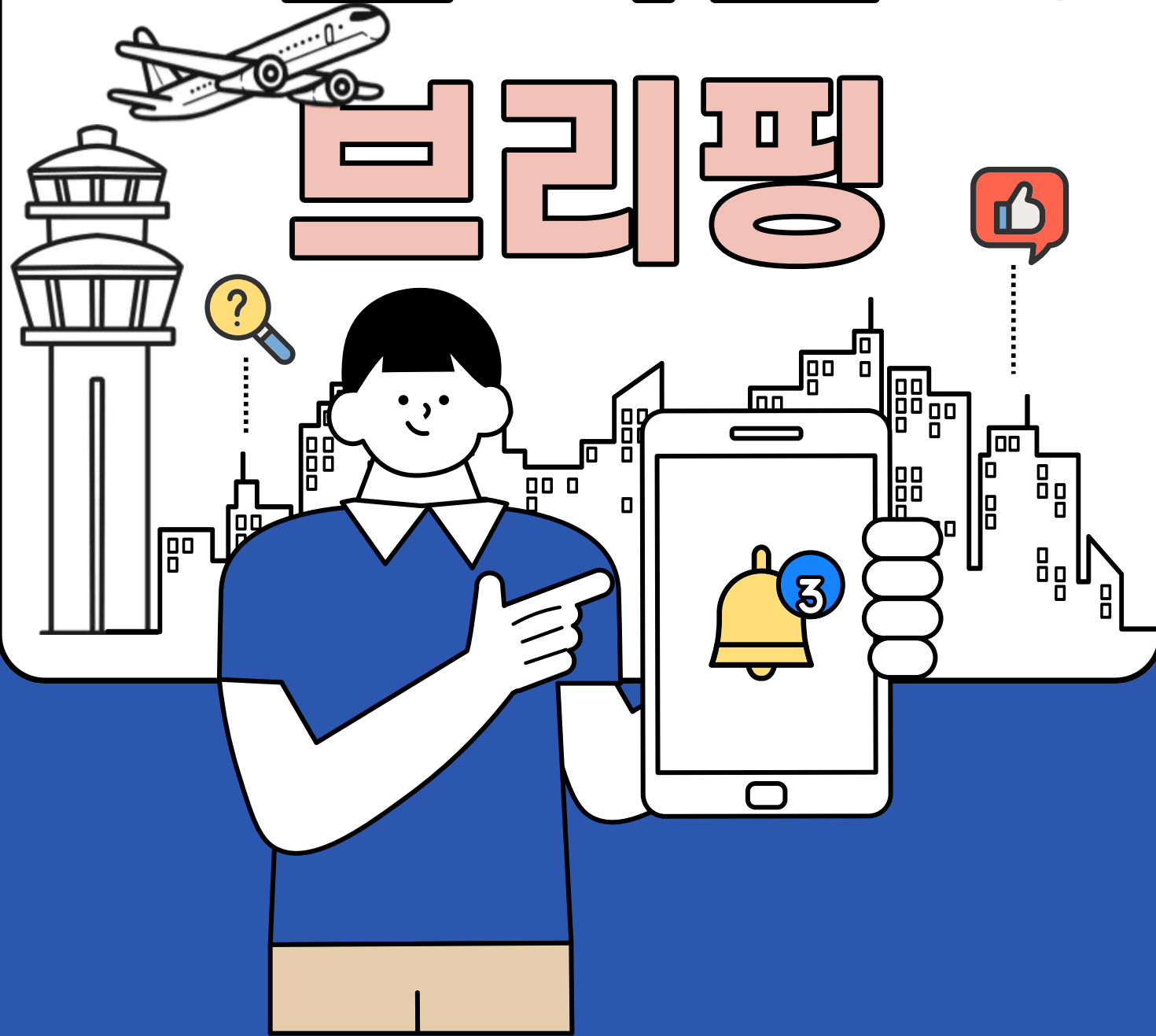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 안내

최대 60만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바로 업데이트 해야할 정책 주파수

관제탑

브리핑



1. 신청대상 및 지원 금액

- 대상**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 국민
- 금액**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60만원 (지급 구간별 차등)
- 지원방식** 소득별 지원별 맞춤형 지원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원	50만원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2. 신청기간

- 취약계층** 1차: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2차: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 일반대상자**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_ 국민의 70%

3. 신청방법

- 온라인** 각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24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협약 은행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오프라인 방문 시 필수)

4. 사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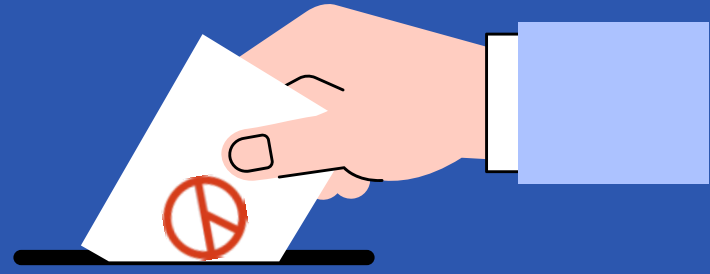
- 지급방식**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택1
- 사용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처**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편의점, 식당 등
* 대형마트/유흥업소 제외



우리 동네의 미래,

당신의 한 표로 완성됩니다

제9회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1. 투표일 및 투표장소

- 투표일** 2026.06.03.(수)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8.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 사전투표

- 투표기간** 2026.05.29.(금) ~ 2026.05.30.(토)
-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3.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 실물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화면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대한민국 반값여행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1. 핵심혜택 및 지원 규모

조건에 맞는 국내 여행을 다녀온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출한 경비의 50%를 해당 지역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 개인여행(1인)** 최대 10만 원 환급 (20만 원 지출 시 10만 원 환급)
- 단체여행(2인 이상)** 최대 20만 원 환급 (40만 원 지출 시 20만 원 환급)
- 지급방식** 환급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여행지의 식당, 카페, 전통시장, 기념품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특산물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가능

2. 올해 상반기 '반값 여행' 가능 지역 (전국 16개 지자체)

-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전북** 고창군 **충북** 제천시

※ 올해 4~6월 말까지 상반기 시범 운영되며, 하반기에 4곳이 더 추가될 예정

3. ✨ 핵심 이용 절차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 1** 여행 전: 사전 신청 및 승인 받기
여행예정 지자체 '반값 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페이지에 접속하여 여행 계획 (인원 및 기간)을 등록하고 지자체의 승인 문자(확정 안내)를 받아 자격획득
- 2** 여행 중: 계획대로 즐기고 영수증 챙기기
승인받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숙박, 식비, 교통비, 체험비 등을 결제합니다.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기
- 3** 여행 후: 14일 이내 증빙 제출
여행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한 지자체 반값여행 사이트에 방문하여 챙겨온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
- 4** 환급 완료: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지자체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이용 금액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의 모바일 앱으로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50% 환급액)이 발급

지자체별 다를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횡성, 남해, 영암, 제천 상반기 마감)

사내복지 정보의 완성

쉿! 비밀이야 너만 알려줄게



소식지

PAPI

로부터

01

당연히 알뜰살뜰 써야지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최대 8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02

여행의 치트키 사내휴양소 운영

연중·하계 전국 최고급!! 호텔/리조트 2박 3일 지원

*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취소 가능



03

병원비 걱정 덜어드려요 단체상해보험

입원/통원 의료비 및 1~5종 수술비 정액 지원

* 삼성화재 모바일 앱으로 24시간 간편 청구



04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직원종합건강검진

정규직 종합검진 및 유해분야 특수검진 지원

* 10월 31일까지 지정 기관에서 수검 필수



"회사가 나를 위해 준비한 혜택, 설마 몰라서 못 쓰고 계셨나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출근길이 가벼워지는 법! "이것까지 챙겨준다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남부공항서비스만의 알짜배기 복지 제도를 한눈에 요약해 드립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100% 누리세요!



01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배정 금액

1인당 최대 800,000 포인트 (1포인트 = 현금 1원)

운영 및 사용기간

2026년 4월 6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

▲ 주의사항
사용 기간 이후 남은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거나 현금 청구되지 않고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온라인) 현대이저웰 자사 폐쇄몰 사이트 (sairports.ezwell.com) 접속 후 포인트 차감 구매 (초기 ID: 사번 / PW: 생년월일 8자리)
(오프라인) 하나카드 가맹점에서 복지카드(신용/체크) 결제 후, 온라인 복지몰에 접속하여 포인트 차감 신청 필수

신분변동자(월할)

연도 중 입사, 휴직, 복직, 퇴직, 인사조치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배정 및 환수

휴직자 예외 적용

일반 휴직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 적용 대상에 포함

문의 사항

※ 문의 시 개인정보 제공 필요(본인 외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 온라인 복지몰,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



☎ 1600-0011 (09:00 ~ 18: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 복지카드 이용 관련 하나카드

☎ 051-920-4282(4264) (09:00 ~ 17: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02 사내 휴양소 운영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 향상과 적절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및 하계 휴양 시설 운영



이용 일 수 1인당 연 2박 3일(연속 이용)

운영 기간 (연중 휴양소) 2026. 6. 7. ~ 7. 14.
2026. 8. 23. ~ 10. 27. (일~화 고정 2박)
(하계 휴양소) 2026. 7. 18. ~ 8. 17. (운영 시작일부터 연속 2박)

주요 운영 시설 및 권역 (경상/부산) 뉴시즈 LCT 레지던스, 덕구 온천 호텔&콘도, 뉴시즈 해운대 레지던스 등

(제주)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금호리조트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등

(강원/서울/전라)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베네치아 호텔 앤 스위트 여수 등

- 이용자격 및 유의사항**
- 근속연수 1년 이상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
 - 휴직(예정)자는 휴양소 이용일 기준으로 재직 상태여야 하므로, "휴직일 전" 또는 "복직일 이후" 시설만 예약 가능
※ 단, 육아, 산재 휴직의 경우 예약 및 이용 가능
 -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직접 취소
 - 예약취소 통보기간 미준수 및 당일 노쇼(No-Show) 발생 시 차후 휴양소 이용이 제한 및 이용 금액에 대한 과세 처리

구 분	대상자			일 정		비 고
	순위	본사	지점	접 수	발 표	
1차 추첨	1순위	0	0	2026.05.11.(월) 14:00 ~ 18.(월) 23:59	2026.05.19.(화)	무작위 추첨
2차 추첨	1~2 순위	X	0	2026.05.20.(수) 14:00 ~ 26.(화) 23:59	2026.05.27.(수)	
선착순 배정	1~3 순위	X	0	2026.05.28.(목) 10:00 ~	실시간	

03 단체상해보험 가입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건강 관리를 위해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 장 기 간 2026년 3월 20일 ~ 2027년 3월 20일 (1년간)

- 핵심 보장내용**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 암 진단비 (최대 5백만 원), 갑상샘암 (1백50만 원), 2대 질병(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상해/질병 의료비: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출산 포함, 연 3천만 원 한도)
 - 정맥형 수술비: 1~5종 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차등 지급
(예: 피부이식수술 25cm² 이상은 3종 수술, 25cm² 미만은 1종 수술 적용)
- ※ 이메일 접수(paper5@samsung.com)도 가능하지만, '삼성화재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직원 건강검진(종합·특수) 실시

검진 기간 2026년 2월 9일(월) ~ 2026년 10월 31일(토) (9개월간)
▲ 주의사항
검진 기간 후반에는 예약이 집중되어 원하는 날짜에 수검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예약 권장

- 검진 대상 및 기준**
- 종합검진: 정규직 직원 대상 (기간제 근로자 및 휴직자는 제외)
 - 휴직자 예외 적용: 일반 휴직자는 제외되나, 검진 기간내 복직 시 수검 단, 산재휴직자 및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 수검
 - 특수검진: 유해인자 노출 분야 근로자 대상 (법적 검진주기 준수 필수)
① 정기특수검진: 전년도 검진일 기준 12개월 이내
② 배치후검진: 해당 작업 신규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 기관 안내**
- 소속 지점별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만 수검이 가능하며, 타지역 검진기관에서의 수검은 불가
 - 상세 지정 기관 명단 및 예약 방법은 사내 게시판의 붙임 문서 참고

남부공항서비스(주)

2026년 상반기 제안제도

제출기간: ~ 06.30.

조직 혁신 및 현장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도모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출주제

-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
- 조직 경쟁력 강화 방안
-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 비용절감 방안
- 경영실적평가 득점 향상에 현저한 기여 사항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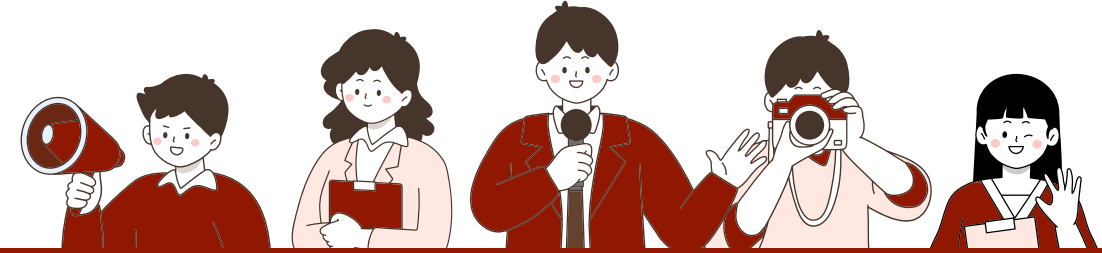
- 1등급 : 1,000만원 ~ 500만원
- 2등급 : 500만원 ~ 300만원
- 3등급 : 300만원 ~ 100만원
- 4등급 : 100만원
- 5등급 : 50만원
- 6등급 : 20만원

※ 제출방법
- 그룹웨어 자료실에서 [제안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대내문서(수신처: 전략기획팀)를 통해 접수

2026년 우리 회사 사내소식지

상시접수

P.A.P.I 직원 참여 안내



P.A.P.I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우리 팀 이야기, 숨겨둔 글솜씨를 뽐내주세요!"

우리 회사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사내 소식지를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사진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록부터 동료들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식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참여 주제

- ▶ 우리 팀·지점 자랑
"우리 팀 분위기 최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지점이나 팀의 일상, 끈끈한 팀워크 인증샷
- ▶ 칭찬 배달통
평소 고마웠던 동료, 칭찬하고 싶은 직원의 미담과 응원 메시지
- ▶ 방구석 가이드
나만 알고 있는 지역별 숨은 맛집, 여행지 추천 (사진 환영!)
- ▶ 소통의 창
회사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참신한 아이디어
- ▶ 자유 창작소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감성적인 시, 수필, 짧은 글 등
- ▶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휴양소 사용후기, 반려동물 자랑 등 무엇이든 !!

참여 방법

- ▶ 네이버 폼을 통한 기고
링크: <https://naver.me/5p0qVqOU>



- ▶ 네이버폼 양식에 맞추어 내용 입력 및 이미지 첨부 (스마트폰 사진 환영)
- ▶ 참여 대상
회사와 동료를 사랑하는 임직원 누구나

소식지에 글이나 사진이 채택되어 게재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 모여 우리 회사의 특별한 스토리가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담당부서: 남부공항서비스(주) 기획본부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051-974-2023)